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 동 룬
서강대 교수

학창시절, 국사수업에서 가장 알 수 없는 일 중의 하나는 의병에 관한 기록이었다. 임진왜란 의병기록은 지도에 밀줄까지 그어가며 소상히 배웠다. 그뿐인가, 크고 작은 시험에 자랑스런 의병의 역사는 꼭 출제되었고 행주치마 유래까지 곁들인 역사 선생님의 자부심이 가득한 수업을 들으며 뿌듯해 했다.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된 뒤 가진 의문은 병자호란 때에는 어찌하여 자랑스러운 의병의 역사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병자호란 당시의 의병의 활약사는 배운 기억이 많지 않다. 아니 나의 경우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같은 의문은 책을 읽고 역사학자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풀려 나갔다. 임진왜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

란은 조선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전쟁은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사대부 지배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알려진 대로 선조는 전쟁이 발발하자 의주로 도망간다. 조선의 정궁(正宮)은 왜적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에 의해 불타는 지옥을 겪게 된다. 선조의 도망은 곧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도피하면서 사흘 뒤 평양에서 점심을 먹겠다는 허언과 고소란히 일치한다.

당시 선조의 명나라 망명 시도는 결내부(乞內附) 파동으로 정의된다. 결내부란 나라가 다른 나라 속으로 들어붙기를 애걸한다는 의미다. 곧 자신과 비빈들만이 살기 위해 조선을 버리겠다는 것. 그러던 이 저열한 조선왕은 이내 왜적과 싸우기로 맘을 바꾼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명이 선조를 요동의 빈 관아에 유폐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명에 빌붙어 비빈들을 거느리며 제후로 살려둔 계획이 틀어지자 선조는 내키지 않은 전쟁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 류성룡은 노비들이 왜적의 수급을 가져 오면 양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면전법을 강행한다(선조

26년). 왜적 수급 하나면 양민으로 돌려준다 데 의병을 마다할 노비가 어디 있겠는가. 이는 몇몇 개혁입법과 함께 수많은 조선 의병들을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노비제 철폐는 궁궐을 불태웠던 백성들이 희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런 개혁이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임란은 조선에 되레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이같은 기대를 철저히 게 외면했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지고 자리가 어느 정도가 보전되자 생각이 달라진다. 전쟁 영웅 제거가 시작되었다. 육지전투의 영웅 의병장 김덕령을 역적으로 회했다며 혹독하게 고문해 죽인다. 이순신도 제거 대상. 선조는 “이순신은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고…내가 늘 의심하였다”(“선조실록” 29년 6월 26일)고 비판했다.

남인 류성룡이 천거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던 좌의정 김응남 등 서인의 비판을 핑계로 이순신 제거에 나선다. 한 달간 적절한 고문을 받던 이순신은 목숨만 건져 백의종군에 처해졌다.

이 외에도 원군이 1597년 한산도와 칠

천도에서 거둬 대패해 수군은 꺾멸되고 자신도 전사했다. 선조는 할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삼았으나 스스로 수군은 끝났다고 판단해 수군 해체령을 내리고 이순신을 육군으로 발령하기까지 한다.

저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사력을 다해 싸우면 적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는 대목은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 지루했던 전쟁은 끝났다. 수백만 백성의 죽음 위에 선조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왜적을 죽이면 양민으로 신분을 돌려주겠다는 면전법을 선조는 아예 없던 일로 해 버렸다. 이후 44년 만에 병자호란이 터졌다. 의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백성을 저버리고 저 혼자 살기 위해 의주까지 도망간 기독교 세력에게 민초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슬프게도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계절은 어느 덧 여름의 끝이다. 이순신 영화가 화제라고 한다. 이 비운의 영웅을 생각하며 올 여름과 이제 이 별헤야겠다.

社 說

겉만 번지르르한 광주시의 해외투자 유치

광주시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속빈 강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가까이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금액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대에 불과했다. 게다가 대형 투자유치사업 상당수가 중단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 외자 유치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시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는 70개 회사 2조230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8개 사 404억 원에 그쳤다. 업체 수로는 4분의 1이 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면 실투자율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투자가 완료되기까지는 4~5년이 걸리고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비율이 20~3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낮은 투자 실행율이다. 이미 투자한 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

하거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10월 평등 외국인투자지역에 광학용 소재 생산공장을 설립한 미국 RMI사는 최근 자금난 등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2600억 원대 투자를 약속하며 지난해 10월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공장 기공식까지 연 미국 솔로파워사는 여태껏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외자 유치가 외화내빈인 것은 열악한 투자여건과 함께 지자체의 성과주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가 무르익기도 전에 선부르게 실적부터 발표하는 등 홍보에만 열을 올려온 탓이 크다.

지방자치의 최대 하두 중 하나는 일자리 확보다. 기업 투자유치는 고용은 물론 인구·세수 증대 등에 필수적인 만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투자 약속이 실제로 연결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순환도로 요금 언제까지 현금 내야 하나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요금 징수방식을 놓고 10년 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저렴한 설치 및 유지비용이 장점인 점속식 교통카드 시스템과 편의·호환성이 뛰어난 하이패스 설치 여부를 두고 수차례 결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오라카락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1200원(소형차)의 현금을 내야 하는 요금 방식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 정체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시가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설치안을 검토했지만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순환도로는 하루 평균 12만 3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3개 구간에서 총 1억3000여만 원의 통행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통 10년이 넘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지불방식인 현금 지급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 요금소는 차량 통행시스템의 노후화로 신형 경차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검토했던 교통카드 시스템 대신 하이패스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기대난이다. 광주시가 시스템 교체 시점에 대해 “소요 예산이 25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순환도로 지원금을 놓고 광주시와 소송을 진행 중인 민자사업자 맥쿼리 측이 하이패스 추가 설치 비용을 낼 수 없다고 거부한 데다 운장형 시장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하이패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예산문제 등 여러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그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맥쿼리 측과 담판을 짓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마냥 인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의료칼럼

여름은 피부의 적



김 민 성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덥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이다. 강한 자외선은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의 노화현상도 촉진한다. 자외선을 피하려면 자외선의 정체부터 알아야 한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UVB-UV C 세 가지로 나뉜다. 이중 UV C는 생명체를 파괴하지만 오존층 때문에 지상까지 도달하지 않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제는 UVA와 UVB다. UVA는 35~50%가 피부의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닿아 피부를 검게 만든다. UVB는 피

부를 빨갧게 만들고 강한 염증을 발생시키거나 수포를 만드는 햇빛 화상(sunburn) 상태를 만든다. 햇빛 화상은 노출 후 4~8시간쯤 나타나는데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아픈데 물집이 생긴다. 또한 야외에서 잠깐이라도 햇빛 속에 노출하면 주근깨나 기미와 같은 갈색 반점이 더 짙어질 수 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이 쌓이면 피부 노화가 발생한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얼굴이 지든 색깔이 붉으며, 탄력이 감소해 주름이 생긴다. 가는 혈관들도 늘어나서 붉은 반점도 보이게 된다. 피부 손상이 더 진행하면 표피세포의 이화해를 초래해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외선은 이미 갖고 있는 여드름,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자외선에 비정상인 반응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 다형광반진, 만성일광피부염, 햇빛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피부병들은 대개 가렵고 따가운 느낌과 함께 울긋불긋한 발진이 든다. 초기에서 중기를 지나 만성이

되면 부기와 물집은 줄어드는 대신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피부 주름이 두드러져 버늘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피부색이 하얗거나 검게 변하기도 한다.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땀의 양이 늘고, 세균과 곰팡이가 활발히 번식하게 되면 증상은 훨씬 심해질 수 있다.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시간대에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 햇빛노출을 피해야 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에도 80% 정도의 자외선이 구름을 뚫고 나와 우리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날씨가 맑은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UVB 기준 자외선 차단 지수(SPF)가 30이상이고 PA 지수가 같이 기재되어 자외선 A와 B 모두를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두껍게 덧논다는 느낌으로 발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껍게 덧지대지 바르는 게 모양상 좋지 않으므로 외출 30분 전

에 한 번 바르고, 나가기 직전에 한 번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는 방법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의복, 모자, 양산과 같은 물리적 차단 방법이 있다. 촘촘한 천으로 만든 의복, 두꺼운 직물, 짙은 색상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다.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기능이 있는 비타민의 복용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는데 도움을 주며 당근, 오렌지 등 녹색이나 황색 식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평소에도 녹황색 과일이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워는 피부를 위해서 하루 한번만 하는 것이 좋지만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흐르므로 샤워를 자주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하루에 1회 정도는 비누 등의 세정제로 샤워를 하고, 다시 샤워를 할 때는 물로만 하거나 거드랑이나 사타구니 등 땀이 많이 차는 부위만 씻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피부가 건조하면 로션타입의 보습제를 샤워 후 발라주는 것이 좋다.

기 고

‘생명이 있는 스토리텔링 관광정책’을 기대한다



조 길 현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의장

세월호 사건과 국가적인 경기 침체, 잇따른 태풍까지 맞물려 전남이 신음하고 있다. 서민뿐만 아니라 전남의 일자리 창출과 현금흐름을 활성화시키는 관광산업까지 아사 직전이어서 전남의 토종핵심 산업인 레저 관광분야의 일꾼들도 ‘언제나 희망이 보일까?’라며 지쳐가고 있다.

현재 우리 전남 관광산업은 세월호 참사 후 악화일로에 위기 상황이다. 여러 가지 내적인 상황으로 특히 진도를 비롯 한 목포, 해남, 신안 등 전남 서남부 권은 말 그대로 ‘점방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여행객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고 기껏해야 고향 생각나 찾는 향우들이나 출장자 들뿐이다. 여름 휴가철 보름 정도만 반짝

할 것이 분명하지만 태풍까지 겹쳐 올해는 더 신음소리가 커졌다. 특히 ‘산 맛에 전라도를 찾는다.’라는 슬픈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을 지경이다. 그나마 기대감이 싹튼 것은 ‘생명의 땅’이라는 브랜드를 내건 이낙연 도지사 시대가 열렸다는 것. 이제 이낙연 지사는 전남도의 수장답게 ‘생명의 땅’을 어떻게 상품화시킬 수 있는지 명쾌한 계획과 답을 제시해야 한다. ‘생명’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바다라는 생명의 보고와 광활하고 기쁜 농토는 말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생명이다. 각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남도에서만 볼 수 있는 오래된 골목길과 고향의 돌담길, 역사의 현장 등도 문화라는 ‘혼’을 불어넣으면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그 어느 분야에도 도지사의 일관된 의지와 창의적인 행정이 접목되면 아찔이슬처럼 희망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생명의 여행지, 생태의 여행지 전남’으로 탈바꿈시키는 관광문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스토리텔링과 생명이 조화를 이룬

관광정책이 입안되지 않으면 전남은 영원한 낙후의 땅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줄어드는 인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유입된 인구가 은퇴자뿐이면 우리 전남의 미래는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다.

이낙연 지사는 최소한 ‘생명이 있는 스토리텔링 전남 관광’ 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에 주력해야 한다. ▲취업창출을 위해 농어촌에 공업(제조업)과 관광서비스업 도입 ▲야간관광 상품 활성화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관광기념상품개발 ▲지역 내 관광네트워크 구축 ▲부실한 안내체계와 안내정보 및 해설프로그램의 운영능력 강화 ▲전남도민의 서비스 마인드 배양을 위해 일반도민, 관광업계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 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서비스 경쟁력 향상 ▲지자체, 민간단체 및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남방문캠페인 추진 등이 있다.

관광산업에서 관광자원의 시설통신개발과 프로그램개발의 스토리텔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관광지를 연극이나 영화처럼 치밀하게 기획하고 연출

하려는 의지와 관광상품화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은 리조트 개발이 농어촌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리조트법이 제정되고 일본국토의 20~30%를 리조트로 개발한다는 구상이 나왔지만, 결국 버릴 경제분기로 이어져서 오히려 환경 파괴와 환경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우리도 역시 지자체마다 시설확충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바람에 차별화된 관광매력, 관광상품 안내체계, 이벤트 서비스 품질의 향상 등이 소홀해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대식 호텔은 있으나 국제적인 수준의 서비스가 없고, 관광지는 있으나 차별화된 볼거리가 없고, 빈틈한 공연장은 있으나 감동을 전하는 배우와 연출이 없다. 모양새만 겨우 갖추었지 알맹이(content)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은 ‘볼 것 없고 살 것 없고 놀 것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제 이낙연지사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남 방문 캠페인’을 추진, 전남 지역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 침울해진 전남에 화색이 돌도록 해야 한다.

無 等 鼓

여름이면 어김없이 ‘남량 특집극’이나 ‘공포 영화’가 등장한다. 섬뜩하고 오싹한 긴장과 공포를 통해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히려는 배려(?)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남량특집극이나 공포영화보다 더 충격적이고 열거적인 사건들이 국민들의 소름을 돋게 하고 있다.

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사건은 특히 우려를 경악케 했다. 윤 일병은 선안병들의 잔혹한 가혹 행위와 구타로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을 35일 동안 구타하고 잠도 재우지 않았는가 하면, 개 흉내를 내면 서 바닥에 벌은 개래침

을 할아먹게 했으며, 늘려 놓은 뒤 1.5리터 물을 붓는 물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성기에 맨소래대 연고제를 바르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반인륜적 가혹 행위로 자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폭행 주범인 이 병장은 이런 사실을 알리면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 여고생 윤 양 살인사건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10대 소녀가 포함된 가해자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것은 물론, 냉면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윤 양에게 마시게 한 후 토하면 다시 활아먹게 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한 끝에 결국 때려서 숨지게 했다.

윤 양이 사망하자 이들은 시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에 불을 지른 뒤 야산에 암매장하는 악마의 모습을 보였다.

이쯤 되면 지난 몇 년 전 개봉해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이병헌·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영화에서 최민식의 피도 눈물도 자비심도 없는 철저한 악마

적 연쇄살인마 ‘경찰’로 분했다. 경찰은 여자들을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한 후 토막 내

시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한다. 윤 일병과 윤 양을 때려 숨지게 한 이들과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주도면밀한 살인마로 나오는 ‘경찰’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잠전 잔혹해지는 10~20대들의 인명 경시와 폭행 실태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 10~20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